

섬진강 연어 '회유 경로' 밝힌다... 어린 연어 50만 마리 방류

첫 표지 방류...3년 후 확인 가능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9일 구례 간전면 섬진강 동방천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연구 활용을 위한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구례군 유관 기관, 지역 주민, 초·중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어린 연어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긴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지난해 10~11월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 연어 457마리를 포획, 직접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것이다. 방류한 어린 연어는 섬진강에서 40여 일간 적응한 후 남해와 동해를 거쳐 머나먼 북태평양 해역까지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연어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60~100cm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고향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대표적 회귀성 어류다.

특히 올해는 '이석 온도자극 표지 방류' 연구로 생산



한 30만 마리를 포함하고 있어 회유 경로와 계군 분석 등 연어 연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지 방류 연구 결과는 올해 방류한 연어가 어미로 성장해 회귀하는 3년 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섬진강 생태계 대표 지표생물인 연어자원 보존은 물론 사라져가는 섬진강 토종 생물 연구와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년 문화인 자문단 위촉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최근 ACC 회의실에서 'ACC 청년 문화인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공연·문화·영상·축제기획, 영상 제작, 시각예술, 미술평론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다.

'ACC 청년 문화인 자문단'은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이 ACC와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9일 전남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두 달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계좌이체형 사건 23건 중 10건의 피해자가 20대 초반 대학생이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사기관 사칭 및 협박, 고액취업알바 약속 등에 속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학기 초 신입생을 상대로 피

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며 "광주가 보이스피싱 정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

순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임용



한명진(58·사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최근 순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한 석좌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성 출신인 한 석좌교수는 1987년 행정고시(31회)에 합격 후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대통령실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제10대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해 오신 한 석좌교수가 후학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왼쪽)은 지난 10일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가운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콘텐츠진흥원 제공>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한식의 마음(재)	00 오아시스(재)	15 헬로킴지 체육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양크르 MBC 다큐프라임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대한민국 중소상공인 우수상품대전(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남도 지오그래피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게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2TV 생생정보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광주MBC 보다	00 SBS 오뉴스 50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조별리그 <대한민국·중국>
6	00 6시 내고향	00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 B조 <대한민국·중국>	10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조별리그 B조 <대한민국·중국>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8	30 내 눈에 콩깍지			
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00 MBC 뉴스데스크 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동상이몽 2는 내 운명
11	30 KBS 뉴스라인	10 개는 훌륭하다		
12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아이 러브 스포츠	4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10 나이트리인 25 마이 텔레비전 베스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8:30 번개망도의 비밀 스페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디와 블랙캣
07:45 뽀롱뽀롱 부부맨	13:00 버섯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엉덩방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50 인간과 바다
08:20 출동! 슈퍼윙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그린조개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로보가 폴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어른 아이가 되는 시간 1부 골목에 대하여>
09:05 슈퍼투퍼 잉글리시	16:05 영아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개 구조대(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40 엉덩방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음 2월 22일 庚午) ☎ 010-9790-8237

<p>36년생 기발한 발상이 돋보일 수이니 창의성을 도모해보자. 48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 60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84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96년생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44, 83</p>	<p>42년생 앞장 계획이 실효적인 성과를 도모하라. 54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66년생 단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년생 쌍방이 상호적이어야만 오래 지속될 것이다. 90년생 지난간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2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65</p>
<p>37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은 정성적으로 진행되리라. 49년생 재물운이 왕성해 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61년생 중요한 일이니 확실해 해두어야 후환이 없다. 73년생 유연히 생긴 것이 적절히 쓰이게 되리라. 85년생 합리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리라. 97년생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1, 98</p>	<p>43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55년생 어렵잡아서 처리해도 된다. 67년생 별다른 문제점이 아니어도 된다. 79년생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91년생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점점 사항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03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3, 81</p>
<p>38년생 초반에 특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50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62년생 기발한 요령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나은 것이다. 74년생 한순간에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평상시에 생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86년생 구분해 두어야만 한다. 98년생 역할을 분명히 할 성취할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3, 96</p>	<p>44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56년생 좋은 인연과 호뭇한 일이 있을 것이다. 68년생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80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 현명하든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92년생 처음에는 잊었다가 나중에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04년생 사실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7, 52</p>
<p>39년생 별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51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63년생 진땀을 뺀 일이 생길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덤벼야만 한다. 75년생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겠다. 87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99년생 주체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50</p>	<p>45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57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69년생 옛일이 괴롭거나 큰 일은 아니다. 81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93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성사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05년생 내버려 두면 무너져서 버려졌던 바가 현실향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74</p>
<p>40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52년생 겸손 하다면 더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64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에 작용할 것이니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76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하자. 88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00년생 소신껏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9, 73</p>	<p>46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46년생 제의한다면 상대는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58년생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70년생 막연하던 단계를 드러내게 된다. 82년생 어려움이 보이지만 대처 방안도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94년생 과감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7, 94</p>
<p>41년생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65년생 마무리까지 잘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자. 77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로다. 89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01년생 부추는 시각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한다. 행운의 숫자 : 13, 84</p>	<p>35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47년생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59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71년생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83년생 일의 경중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라. 95년생 반드시 순리대로 처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8, 91</p>